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㉔ 슬로시티-신안 증도

갯벌서 짱뚱어 잡고 염전서 소금 만들고

해송산림욕 자전거 투어
병어·민어 등 별미 기행
엘도라도·민박 숙소 풍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며 삶을 즐기는 '슬로 라이프'가 남도의 산과 바다에 조용히 번져나가고 있다. 올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신안 증도, 완도 청산, 담양 창평, 장흥 유치 등 4곳이 자연과 함께 여유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되면서 생긴 변화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의 슬로시티를 2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걷는 '슬로 페이스' '천연식품을 먹자는 '슬로 푸드', 자연 친화적인 주택에서 여유와 멋을 찾자는 '슬로 하우스', 느긋하게 늙어가는 '슬로 에이징', 전통 의상을 입자는 '슬로 웨어', 죽을 때까지 천천히 배우자는 '슬로 에듀케이션' 등 슬로 라이프의 방식은 무궁무진하다.

아시아 첫 슬로시티 신안 증도에서의 삶은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을 슬로 라이프로 이끈다. 지정 첫 해라 아직 '느리게 사는 삶'이 어떤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지만, 외지인들에게는 이 섬 전체가 자연과 더불어 느릿하게 흘러가는 삶이면서, 한 순간에 정지해 있는 휴식과 안정 그 자체이다.

◇놀거리=증도 여행의 중심은 엘로라도 리조트 입구의 증도 갯벌 생태전시관이다. 1층은 갯벌전시관과 영상실, 2층은 갯벌체험학습실로 갯벌의 탄생에서부터 세계의 갯벌, 한국의 갯벌, 갯벌 생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갯벌생태관를 살펴본 뒤, 자전거 투어가 기다린다. 이곳에서 출발해 해송삼림욕 코스 5㎞, 해저유물발굴기념비까지 이어지는 해저보물선 코스는 0.8㎞, 화도까지 드라마세트장 코스는 6.8㎞, 염전을 둘러보는 일주코스는 16.2㎞다. 증도는 375대의 자전거를 준비해두고 있는데, 면사무소, 짱뚱어다리, 소금박물관, 갯벌생태전시관, 우전해수욕장 주차장 등 5곳에서 무료로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증도 갯벌 감상은 주로 태평염전의 서쪽 끝 방파제에서 이뤄진다. 인근 우전해수욕장과 증동리를 잇는 470m의 짱뚱어 다리는 갯벌 관찰로이다. 여기에선 갯벌체험이 가능하다. 질퍽한 갯벌엔 짱뚱어가 날뛰고, 게들도 와글와글 몰려다닌다. 여의도 2배 규모인 태평염전에서의 천일염전체험, 백합잡이 체험 등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증도면사무소 061-240-8620).

우전해수욕장은 증도의 가장 큰 백사장(4㎞)으로, 인근 방풍림은 한반도 모양을 하고 있어 '한반도 해송공원'으로 불린다. 주변의 화도, 병풍도, 기점도에도 볼거리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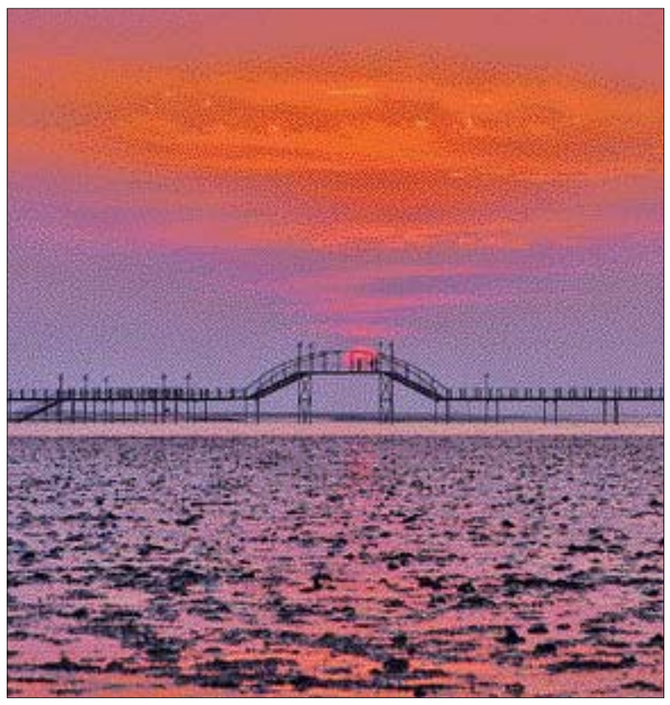
◇묵을 곳=한순간이라도 느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머물 장소가 여유로와야 한다. 작년 한해 동안 10만명, 올 들어 6월까지 5만명이 다녀간 증도는 숙소를 그런대로 갖췄다. 첫째가 끝없이 펼쳐진 리아스식 해안, 흰 모래사장, 눈부신 햇빛과 바다, 맑은 갯바람에 둘러싸인 엘도라도 리조트다. 지난 2006년에 들어선 고급 숙박시설로 15평형에서 83평형까지 21개 동에 121개 객실을 보유했다. 해수온천 스파, 야외수영장,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췄다. 우전 해수욕장 남쪽 끝 해안절벽에 위치해 객실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객실문의www.eldoradoresort.co.kr 061-260-3300, 분양 문의 062-381-0028)

화용민박(061-275-7734) 등 5개의 민박이 우전리에, 보물섬 민박(271-0631) 등 5개의 민박이 증동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학장(271-7800), 현대장(271-7528), 중앙여관(271-7520) 등 모텔에서 묵을 수도 있다.

여름 휴가철엔 갯벌 축제장에 100동, 우전해수욕장에 30동 등 130동의 몽골텐트가 운영된다.

◇먹을거리=요즘 증도의 별미는 병어다. 증도면 고향식당(061-271-7533)에서 병어 등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병어회, 병어찜 각 2만5천원. 민어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밖에 안성식당(271-7998), 이학식당(271-7800), 보물섬식당(271-0631), 갯마을식당(271-7528) 등의 식당에서 한식과 회를 주요 메뉴로 손님을 맞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증도 짱뚱어 다리의 낙조. 〈전남도 제공〉

광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30일부터 나흘간 市청사서 전시회

제11회 광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특별전시회가 30일부터 나흘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공모전 응모작 86종 906점 가운데 우수작으로 뽑힌 관광기념품 30점과 지역 명인들이 제작한 작품 70여점 등 모두 100여점이 선보인다.

우수 관광기념품은 올해 공모전에서 일반부문 대상을 차지한 김광석씨의 '은을 주물기법으로 제작한 무등산 입석대 문양 손거울과 액세서리, 차호'와 금상 수상작인 안명수씨의 '천연염색과 목분기법으로 만든 공예품', 창작부문에서는 백은경·윤혜진씨의 공동작품인 '옻을 이용한 장신구' 등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작고한 조기정씨의 청자를 비롯, 옻칠제품, 국악기, 붓, 자수, 한과, 한지 공예품 등 무형문화재와 명인들이 제작한 기념품이 함께 진열된다.

특히 전시회 기간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명인들이 직접 기념품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국악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시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4일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기념품 명품화사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